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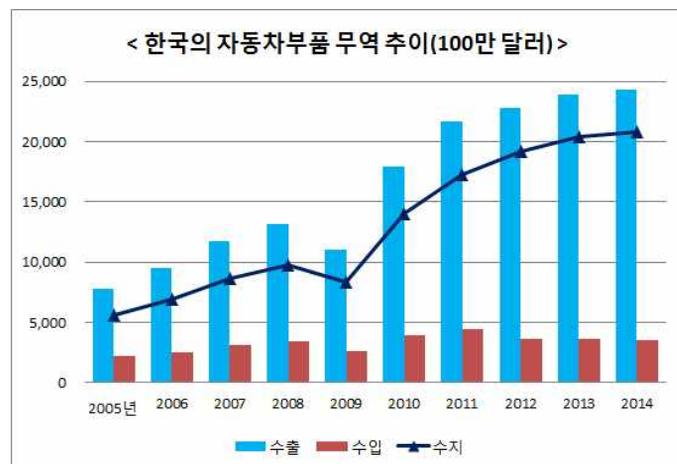
대일 자동차부품의 수입 감소원인

* 이 자료는 무코야마 히데히코(向山英彦) 일본총합연구소 상석주임연구원이 「동양경제일보 전환기의 한국경제(15.3.20)」에 기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 자동차부품의 對日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배경에는 자동차산업의 글로벌화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
- 중국에서의 현지생산 증가, 한미/한-EU FTA 체결, NAFTA를 활용한 對미 수출 전략 등 교역환경의 변화로 자동차부품의 수입 상대국도 다변화

□ 자동차부품은 주력 수출산업으로 부상

-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약 4%를 차지하여 주력 수출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무역 흑자도 지속적으로 확대
- '14년 무역수지는 207억 달러(수출 243억 달러, 수입 3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일본은 제외한 수출 상대국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진출하여 현지 생산을 하는 국가들이 다수



주) 품목코드 : SITC 784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자동차부품의 교역은 해외생산, 글로벌 조달 등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화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일본총합연구소 무코야마 상석주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 수입의 특징에 대해 다음 5가지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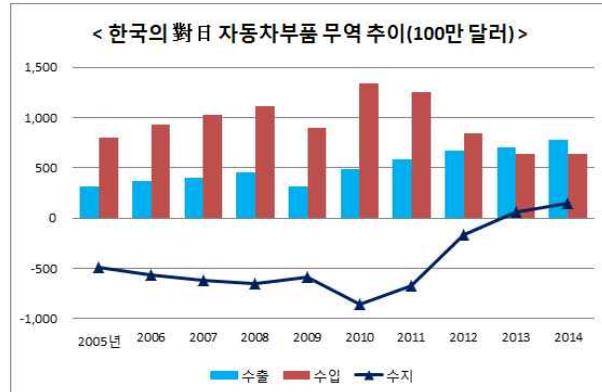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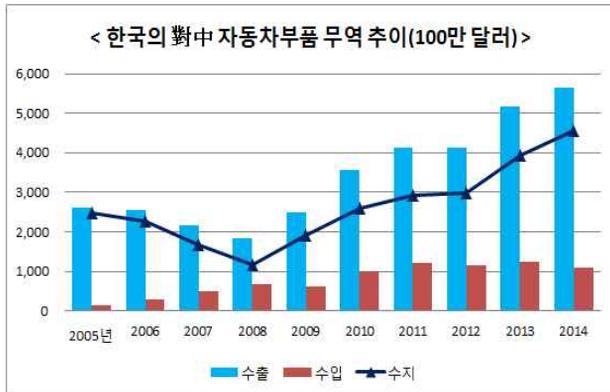
① 對日 수입 의존도 감소

- 한국이 자동차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했던 시기에 한국기업은 일본기업과 제휴하여 기술을 도입하거나 부품을 수입

- 일례로 현대자동차는 미쓰비시자동차공업과 제휴하여 일본차를 베이스로 한 모델을 개발, 이 과정에서 엔진을 포함한 많은 중요 부품을 수입
- 한국은 자동차산업이 발전한 이후 국산화 및 수입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자동차부품의 對日 수입의존도는 2000년 49.0%에서 2014년 17.9%로 대폭 축소

② 對中 수입 의존도 상승

- 2000년대 중반부터 對中 수입이 급증, '14년 34.8%로, '12년 이후 중국이 최대 수입 상대국
-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은 ①중국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한 한국기업의 부품, ②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부품, ③중국 현지기업의 부품 등임
-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의 중국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부품기업이 중국으로 동반 진출하면서 한국에서 역수입이 증가
- 또 휠과 같은 노동집약제품은 중국 현지기업의 제품이 많음



자료 : 한국무역협회

③ 미국, 독일에서 수입 증가

- 미국에서 자동차부품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GM이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
- 독일 부품기업들의 대한국 투자와 한국에서 독일 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부품의 수입도 증가

④ 오스트리아, 멕시코에서 수입 증가

- ‘14년 자동차부품의 수입 상대국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멕시코와 오스트리아가 10위권 내에 진입했다는 것임
 - 오스트리아에서 수입이 증가한 배경에는
 - ① 오스트리아 정부가 산학 연계, 산업 클러스터 등을 통해 자동차산업을 육성한 결과, 독일기업을 중심으로 외국기업들이 오스트리아에 부품제조 거점을 구축하였고,
 - ② 한-EU FTA 체결로 자동차부품의 관세(8%)가 철폐되어 한국의 완성차 기업과 부품기업들이 관세율이 인하된 오스트리아에서 부품 조달을 늘렸을 가능성이 높음
- 멕시코에서 부품 수입이 증가한 배경은 멕시코 정부가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생산 코스트를 낮출 수 있게 되어 미국 수출용 생산거점 역할을 하는 조립 공장이 생겨났기 때문
 - * 멕시코는 미국 및 캐나다와 NAFTA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서의 자동차 생산은 對美 수출에 유리
- 2000년대 후반부터 멕시코에서의 자동차 생산이 증가하여, ‘14년은 세계 7위를 기록(참고 자료 참조)
- 멕시코에 조립 공장이 증가함에 따라 부품기업의 진출도 증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인 한국과의 거래가 자연스럽게 확대된 것으로 유추

< 한국의 자동차부품 수입 상대국 변화(100만 달러) >

2005년		2008년		2010년		2014년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국가명	금액
일본	801	일본	1,108	일본	1,339	중국	1,085
독일	452	중국	673	중국	991	일본	633
미국	349	독일	627	독일	618	독일	596
중국	136	미국	322	미국	282	미국	330
호주	90	폴란드	85	프랑스	142	멕시코	136
이탈리아	89	호주	75	호주	59	오스트리아	125
영국	75	이탈리아	69	헝가리	41	프랑스	85
스웨덴	24	헝가리	66	캐나다	36	호주	58
스페인	23	프랑스	61	폴란드	32	루마니아	48
프랑스	19	태국	34	터키	32	태국	46

자료 : 한국무역협회

⑤ 일본기업의 미국 생산도 증가

○ 한국의 수입차시장에서 일본차 점유율은 '07년 27.4%에서 '14년 10.8%로 감소, 독일차는 41.0%에서 68.1%로 상승

- 일본차의 점유율이 감소한 요인은 '08년 이후 엔고의 영향이 크게 작용
- 일본기업들은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직접 수출했던 자동차를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우회 전략으로 전환



자료 : 한국은행

- 일본의 수출 우회 전략을 추진하여 일본에서의 자동차부품 수입이 감소하였고, 이는 한국의 전체 對日수입 감소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

○ 이성과 같이 한국의 자동차부품 수입상대국이 변화된 배경에는 자동차산업의 글로벌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KJCF**

<참고>

< 국가별 자동차 생산 대수 추이 >

2005년		2008년		2010년		2014년	
국가명	대수	국가명	대수	국가명	대수	국가명	대수
미국	11,946,653	일본	11,575,644	중국	18,264,667	중국	23,722,890
일본	10,799,659	중국	9,299,180	일본	9,625,940	미국	11,660,699
독일	5,757,710	미국	8,639,541	미국	7,761,440	일본	9,774,558
중국	5,708,421	독일	6,045,730	독일	5,905,985	독일	5,907,548
한국	3,699,350	한국	3,826,682	한국	4,271,941	한국	4,524,932
프랑스	3,549,008	브라질	3,215,976	브라질	3,648,358	인도	3,840,160
스페인	2,752,500	프랑스	2,568,978	인도	3,536,783	멕시코	3,365,306
캐나다	2,687,892	스페인	2,541,644	스페인	2,387,900	브라질	3,146,118
브라질	2,530,840	인도	2,332,328	멕시코	2,345,124	스페인	2,402,978
영국	1,803,109	멕시코	2,167,944	프랑스	2,229,421	캐나다	2,393,890

주) 승용차, 상용차(버스, 트럭 포함)의 합계.
 자료 : OICA